

# ‘단식’ 이재명 대표 건강 한계… 커지는 ‘중단’ 목소리

### 15일째 부정맥·체중 감소 등 신체기능 저하…당 대표실로 장소 옮겨 당내 중단 촉구에도 의지 결연…계속 맨 주말·다음주초 입원할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내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건강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외면에 단식 투쟁을 중단할 명분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결국 이 대표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면서 단식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기는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다음 주 초중반이 고비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13일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지난달 30일 단식일 시작한 후 현재 14일째”라면서 “(의료진이) 이 대표의 건강이 한계에 왔다. 지금이라도 단식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천 의원은 “통상 10일에서 14일을 넘기면 의학적으로 불가역적 손상이 온다는 것을 감안하면 단식 한계에 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아직까지 이 대표의 체온, 혈압, 혈당 등은 심각하게 비정상적이지는 않다”며 “다만 저체온증 등으로 인한 신체기능의 저하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일째 검사부터는 전해질 불균형이 보이기 시작했고, 어제부터는 부정맥의 빈도가 많아지고 있다”며 “체중 감소도 상당히 의료진들은 모니터링을 더 자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건강이 크게 악화되면서 이 대표는 이날부터 단식장소를 국회 본청 앞막에서 본청 안 당 대표실로 옮기기로 했다. 지난 9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등 스트레스까지 가중돼 몸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도 불참했다.

정치권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두 번 받았는데, 겉으로는 건강한 척 하지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며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든 상태”라고 전했다.

이 대표 단식이 장기화하면서 당내에서는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와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당내 김근태계 모임인 민평연(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소속 의원들은 이날 잇달아 이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건강 악화를 우려하며 단식 중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전 의원은 이날 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 대표를 만나 “단식이 길어지니 문 전 대통령이 정말 깊게 걱정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가 실종돼 버리고 이제 통보보다는 국민 분열이 횡행하고 있고, 국익이나 민생보다는 이념이 우선시 되는 상황”이라며 “당 대표가 엄청난 상황에 대처하려면 단식을 중단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셔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한다”고 전했다. 이에 이 대표는 “감사한 말씀입니다. 잘 새겨서 잘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현 상황에서 단식을 중단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표실로 단식장을 옮긴 데는 단식을 더 이어가겠다는 이 대표의 결연한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단식 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를 둘러싼 사법리스크의 프레임이 부수고 단식 투쟁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걸어야



단식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국회 사무실에서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소속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다는 ‘사즉생’의 절박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하지만, 당 내외에서는 이번 주말이 단식 투쟁의 고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체력적으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중반 이 대표가 단식 투쟁 끝에 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이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가 결국 단식 투쟁 끝에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면 정국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등도 단식 파국의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24개 부처 ‘청년보좌역’ 최대 3년 채용

국무조정실은 오는 15~25일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24곳이 ‘청년보좌역’ 채용 지원 서류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대신 공약으로 도입된 청년보좌역은 청년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바라보고 청년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앞서 작년 11월부터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9개 기관에서 청년보좌역 제도를 시범 운영했다. 이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15곳이 청년보좌역을 신규 채용해 총 24개 기관이 청년보좌역을 두게 된다.

청년보좌역 채용 형태도 임기를 보장받지 못하는 별정직공무원에서 고정된 임기(1년)가 있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바뀐다. 임기는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합뉴스

## 여의도 브리핑

### “도로공, 호남고속도 확장 지역업체 참여 무심”

#### 조오섭 “다양한 경로 열어줘야”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본격적인 공사발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지역업체 참여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북구갑) 국회의원이 13일 도로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도로공사에 관내 소재 지역업체가 공동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총연장 11.2km에 대해 4~5공구로 추가분할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 최대비율 49% 적용을 요청했다.

국가계약법은 249억원 미만의 공사에 지역외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고, 249억원 이상의 공사는 지역업체 우대제도를 통해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수준으로 운영된다. 부대비용 등을 제외한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비용은 5518억원으로 3공구로 분할해 착공될 예정이다.

1공구 3.5km(1940억원), 2공구 2.5km(1610억원), 3공구 5.2km(1968억원)으로 분할되기 때문에 249억원 이상 공사로 적용

돼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받기 힘든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심수년 지역민의 숙원이기에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최대한 열어줘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사업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재부 고시를 서둘러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민주 “檢, 이재명 수사 ‘DJ·盧 죽이기’와 닮아”

### 최고위 회의…“물증 없는 수사 반복…단식 중인 야당 대표 능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 공작이다”며 비난했다.

정치권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독재 정권은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을 위해 단식 중인 이 대표를 두 번이나 소환조사했다”며 “사건도 되지 않는 사건을 사건화해 능멸하고 괴롭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술자의 말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인데 이마저도 비틀고 뒤집어 언론에 흘리고 날인 거부까지 유도했다”면서 “‘이재명 죽이기’는 ‘김대중 죽이기’, ‘노무현 죽이기’와 닮았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단식 중인 제1야당 대표를 기어이 포토라인에 세우고 영양가 없는 질문들로 시간만 질질 끌며 ‘절대 촉구’하듯 조사했다”며 “물증도 없는 수사를 반복한다는 사실을 감추려고 특정 언론에 공무상 비밀 누설까지 행하며 범죄자 낙인찍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아무리 검찰이라도 하늘의 그물을 빼져나갈 수 없다”며 “불법을 저지른 검찰 관계자들의 책임을 물겠다”고 경고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의 검사가 왜 된 것이냐. 공부 잘해서 나라 범죄 잡으라고 했더니 엉뚱한 조사만 하고 있다”며 “(이 대표를 소환조사

한) 수원지검의 상부 조직과 윤석열 정권, 그리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통이, MB(이명박 전 대통령) 정권 정치검찰 탄압이 데자뷰처럼 떠오른다”며 “이 대표에게는 권한 남용, 김건희 여사에게는 직무 유기, 윤석열 정권의 앞잡이가 되겠다는 정치 검찰에 대해 국민은 두렵다기보다 더럽다는 느낌이 들 것”이라고 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걸 당론 사안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으로선 무의미하다”며 “현재 시점에서 검찰 비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들어올 것을 상징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9년  
1954-2023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전제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자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운 박사

## 2024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학과	수시	정시	
인문사회	신학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7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21	8	
	<b>총계</b>	<b>83</b>	<b>22</b>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증명한다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그대를 기다립니다!”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3. 9. 11(월) ~ 15(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 3(수) ~ 6(토)

· 전형일: 2023. 10. 6(금)

· 전형일: 2024. 1. 19(금)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